

202626성문고(종교)내러티브 저널년 류보현 성문고(종교) 교생 실습 내러티브 저널

2026.05.06. 수

교생실습 첫날이다. 교과 담당 선생님인 육근호 선생님께 면담을 요청해서 만나 뵈었다. 종교 수업은 2학년에 편성되어있고, 수업은 대략 한두 번 정도 진행하게 될 거라고 하셨다. 2학년이 수학여행을 간 상태로 이번 주는 종교 수업이 없다고 하셨다. 다음 주 월화는 예수전도단에서 특별 수업을 준비했기 때문에 수업 참관을 권하셨다. 또한 5월 29일에 찬양 버스킹이 있다고 참석을 권하셨다. 7교시에는 교사 전체 회의에 참석해 선생님들께 인사드리고 대략적인 학교 일정에 대해 알 수 있었다. 또한 부서별로 어떤 행사와 일정이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박주하 연구부장님이 금요일 교직원 예배에 특대 송을 권하셨다. 담임 선생님 수업 일정을 몰라서 일단 오후에 문자로 종례나 조례에 참여해도 되느냐고 연락을 드렸다. 내일 조례에 참석하라고 연락이 왔다. 아직 반 아이들을 만나지 못했지만 빨리 만나고 싶어졌다.

2026.05.07. 목

어제 오후에 담임 선생님께 연락드려서 오늘 아침에 조례에 참석하기로 했다. 8시쯤 교무실로 찾아갔는데 아직 안 오셨다고 옆에 앉은 선생님이 알려주셨다. 8분 정도에 오셔서 사진 명렬표와 이름을 전달받았다. 같이 조례에 들어가서 아이들과 인사할 시간을 주셨다. 갑작스럽게 혼자 남겨져서 사전에 자기소개를 많이 준비해 둘걸 이라는 생각을 했다. 아이들에게 인사하고 궁금한 점 물어보라고 했다. 질문을 두 개 받고 어색한 상태로 종이 쳐서 인사하고 나왔다. 금요일 교직원 예배 특송은 교생 11명 다 같이 하기로 하고 곡을 정했다. 오늘 3학년 모의고사가 있어서 종을 치는 시간이 바뀌었다.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고 있는데 여러 번 갈아엎었다. 한 가지 확실하게 기둥을 세워서 살을 붙여야겠다.

2026.05.08. 금

출근하자마자 1학년 교무실로 내려가서 담임 선생님께 '스탬프 모으기' 활동을 진행해도 되는지 여쭙봤다. 흔쾌히 허락해 주셨고 종례 때 혼자 들어가서 종례 지도와 함께 설명하라고 하셨다. 점심시간에는 금요 교직원 예배가 있고 교생 선생님 다 같이 특송을 하였다. 선생님들 모두 다 같이 부르게 되어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오후에는 강태호 선생님께서 교생실습 동안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할지 알려주셨다. 3시에는 교과 지도 선생님인 육근호 선생님이 티타임을 갖자고 하셔서 대화를 나눴다. 종교 교과는 자유롭게 주제를 정하면 된다고 하셨다. 종례에 들어가서 어버이날이니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표현하라고 말했다. 전달 사항 전달하고 스탬프 찍기 설명하고 배부해 줬다. 반응이 좋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2026.05.11. 월

오늘은 하와이 코나 열방대학교에서 특강을 오시는 날이다. 또한 2학년이 수학여행에서 돌아와서 종교수업 참관이 시작되는 날이다. 오늘 종교수업은 하와이 코나 열방대학에서 진행하신다. 조회에 참관했다. 간단하게 오늘 빠진 아이들을 체크 하시고 핸드폰 건넸다. 오전 내내 수업 준비를 했다. 육근호 선생님께 종교 교과서도 받았다. 교과서를 토대로 수업을 준비하고자 방향을 바꾸었다. 13:40에는 박주하 선생님의 요청으로 학생들에게 어떻게 전도할수 있을지

예수님을 소개할수 있는 선교전략을 함께 의논했다. 7교시에는 종교수업을 참관했다. 종례에 전달할 사항을 전달받고 종례지도를 하였다. 종례 마치고 미션하고 스탬프 찍기를 진행했다. 7교시 수업 중에 종례전달 사항을 받아서 전달사항을 숙지하지 못했더니 중간중간 팀이 생기고 아이들이 어수선해졌다. 꼭 전달사항을 숙지하고 들어가야겠다.

2026.05.12. 화

교감 선생님과 5교시에 회의하였다. 교생 생활동안 해야 하면 좋은 일들과 아이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려주셨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아이들과 친밀감을 쌓기 위해서 종례와 같이 청소를 시키는 것과 식당에서 아이들과 같이 밥을 먹는 것이다. 밥을 먹으면서 아이들을 파악할 수 있다. 상담하기 전에는 해야 할 말을 찾아 정리해서 가야 한다. 말씀이 끝나시고 다같이 학교를 돌아다니며 학교에 관해 설명해 주셨다. 학교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다. 6교시에는 과학 수업 참관하였다. 한혜선 선생님이 아이들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시는지 알 수 있었다.

2026.05.13. 수

오늘 아침에는 조례에 참관했다. 2교시에는 종교 수업에 참관했다. 처음으로 육근호 선생님의 수업을 참관하는 날이었다. 3교시 수업도 종교 수업이라서 연달아서 참관하였다. 같은 수업 내용이라도 아이들의 반응에 따라 유연하게 진행하시는 걸 보고 수업 준비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또한 사례와 예시를 교과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가져오셔서 아이들이 흥미로워했다. 수업 준비할 때 풍부한 수업이 되기 위해서 다양한 사례와 예시를 찾아와야겠다. 또한 아이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피드백을 하는 과정에서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수업이 양방향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아이들이 충분히 생각할 시간과 적절한 피드백을 주는 연습을 해야겠다. 수요일은 6교시만 하는 날이라서 종례 시간을 잘 챙겨야 한다.

2026.5.14. 목

오늘 조례에 참관하고 끝나고 스승의날 이벤트로 롤링페이퍼를 쓸 수 있게 지도했다. 반 아이들 모두 선뜻 참여해줬다. 쉬는 시간에 종종 내려가서 롤링 페이퍼 얼마나 썼는지 확인했다. 당장 내일이 스승의날이라서 마음이 급했다. 5교시에 종교 수업 참관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4번 들어갔는데 모두 같은 내용이었다.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반응에 따라서 수업 분위기가 달랐다. 오늘 들어간 반은 아이들이 활발하게 수업에 참여하고 대답을 많이 했다. 아이들의 대답에 선생님은 경청하시고 적절한 피드백을 주셨다. 상호작용에 많아짐에 따라 수업이 더 풍성해진 거 같다. 아이들이 대답을 많이 할 수 있게 질문을 적절하게 준비해 가야겠다.

2026.05.15. 금

오늘은 스승의날이라서 일찍 출근했다. 가방은 교생실에 두고 바로 교실로 가서 아이들과 스승의 은혜 노래를 연습했다. 그리고 서프라이즈 동선을 짰다. 담임 선생님이 기뻐하셔서 좋았다. 학생들이 평소 표현하지 못했던 감사함을 담아내는 과정을 돕고 이 과정이 학급 전체의 긍정적인 분위기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1교시부터 3교시가 창체시간이라서 편지쓰기 활동을 한다고 들었다. 아이들과 친해지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선생님께 창체 시간을

사용해도 되는지 여쭙봤다.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3교시에 자기소개와 아이스 브레이킹을 진행하였다. 급하게 준비한 거라서 아쉬움이 있기도 하지만 아이들과 한층 더 가까워진 것 같다.

2026.05.18. 월

오늘 종교 교생 수업 실습이 시작됐다. 1교시에 수업지도안 피드백을 진행했다. 간단하게 어떤 주제를 잡았고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 여쭙보셨다. 2교시에 동료 교생 수업 실습이 진행됐다. 2학년 7반에서 진행됐다. 인내심에 대한 밸런스 게임을 통해 용서라는 주제로 넘어가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용서와 심리학의 관계까지 이어 나간 것이 좋았다. 패들릿을 활용하여 진행하여 에듀테크까지 접목하였다. 내일 있을 수업이 너무 떨린다.

2026.05.19. 화

오늘 나의 첫 수업이 시작되는 날이었다. 어제 야근하면서 수업 준비를 끝냈다. 첫 수업이라서 많이 긴장됐다. 수업을 진행해 보니 내용이 적은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 이론 수업 반 활동반 이렇게 시간을 분배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 의문이 들었다. 다행히 시간이 과장되지도 너무 많이 남지도 않고 4분 남기고 끝났다. 첫 수업 종료 후 해방감이 느껴졌다. 수업 주제부터 해서 수업 활동 준비까지 여러 생각이 많았고 여러 번 수업 주제를 옆었다. 그만큼 신경도 많이 쓰고 심혈을 기울였다는 뜻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수업 진행하고 다음 교시에 피드백을 진행했다. 주제와 종교의 연결점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육근호 선생님이 적절한 피드백을 주셨다. 종교 인식이 무너진 나를 어떻게 세웠는가 등 읊 내용을 더 깊이 전달해서 신앙이라는 게 ~을 통해 일으킬 수 있다는 등 연결해 보라고 조언해 주셨다. 또한 일반적 사례와 종교적 사례를 비교하는 것도 좋다고 하셨다. 육근호 선생님을, 수업을 진행하실 때 흥미로운 사례와 예시를 많이 가져오신다. 어디서 어떻게 그런 적합하고 흥미로운 사례를 가져오시는지 궁금해서 여쭙봤다. 육근호 선생님은 교과서를 우선 분석하시고 AI에게 수업과 수업 교안을 만들어 보라고 한 뒤 다시 클로드에 교안을 보내서 ppt를 만드는 작업을 하신다고 하셨다. 오늘 받은 피드백을 반영하여 수정 후 내일 수업을 진행해야겠다.

2026.05.22. 금

오늘 체육대회였다. 어제 오후 시간부터 오늘 있을 체육대회 규칙이나 주의할 점 등을 열심히 말했다. 아침에 교실에서 의자를 운동장으로 옮겼다. 아이들과 응원하며 함께 이야기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 덕분에 아이들과 한층 더 가까워진 거 같다.

2026.05.26. 화

오늘은 교수님이 방문하셨다. 10시 30분에 오셨다. 종교 교과 선생님이신 육근호 선생님께도 말씀드려서 교수님과 육근호 선생님과 30분 정도 대화를 나누셨다. 오랜만에 교수님을 뵈어서 너무 반갑고 힘이 됐다. 5교시에는 동료 교생 선생님의 종교 수업이 있었다. 같은 수업 주제이고 수업 구성이라도 아이들의 반응에 따라 어떻게 바뀌는지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야간자율 학습 감독을 했다. 큰 세미나실에서 야간자율 학습 신청자에게만 진행됐다. 크게 떠들고 면학 분위기를 방해하는 학생이 없어서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다만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학교에 있으니 피곤함이 몰려왔다.

2026.05.29. 금

마지막 날이라서 일지도 최종 마감하고 도장도 받았다. 오전에는 조례 지도 하고 따로 참관하지 않고 교생실에서 아이들 줄 선물과 편지를 마무리했다. 점심 먹고 12시 50분부터 찬양 버스킹을 진행했다. 마지막 날에 찬양 버스킹으로 아이들과 즐기며 섬길 수 있어서 좋았다. 시작할 때보다 점점 아이들이 많이 와서 다 같이 찬양을 즐기고 은혜와 축복을 나눌 있어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오후에는 선물 준비를 끝내고 옆 회의실에서 어제 못 보였던 교감 선생님을 뵈었다. 간단하게 마무리 인사를 하고 종례 전까지 교생실 청소를 진행했다. 종례 시간이 다가와서 한두 명씩 교실로 선물을 들고 내려갔다. 나는 종례 시간에 선물을 전달하기로 이야기 해두어서 종례 시간에 맞춰서 내려갔다. 교실 들어가니 초코파이로 케이크 만들어서 주고 “이젠 안녕”을 불러주었다. 눈물이 났다. 아이들 한명 한명 이름 부르면서 선물을 나눠줬다. 4주라는 게 길거 같았는데 너무 빨리 지나갔다. 첫 주는 적응하다가 시간이 다 갔고 2주 차는 참관하고 수업 준비하고.... 3주 차는 수업 준비하고 수업 실습하고 참관하고.... 마지막에는 수업 참관도 하고 간담회하고 선물 준비하느라 시간이 빠르게 흐른 거 같다. 내가 준비한 선물과 마음이 아이들에게도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 나의 첫 제자이자 마지막 제자일 거라고 생각하니 내 모든 것을 다 해주고 가고 싶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뜨개질해서 선물했던 거 같다. 또한 교생 오기 전까지 수업 주제를 못 잡고 갈피를 못 잡아서 생각이 많았다. 같은 종교 교생으로 종교 교생 선생님들과 수업 주제와 진행에 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어서 좋았고 수업 진행에 능숙한 교생 선생님들 덕분에 수업 준비할 때도 많은 도움을 받았던 거 같다. 담당 학급은 1학년이고 종교 수업은 2학년에만 있어서 라포르 형성에 있어서 내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했는데 초반에 그렇지 못했던 게 아쉬움에 남아 있다.

사고 없이 무탈하게 은혜 안에서 교생실습을 끝낼 수 있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하다.